

異型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補

秦 弘 燮

一

筆者는 앞서 慶州南山洞 東三層石塔、慶州西岳洞 三層石塔、慶州南山 茸長溪頂上 廢塔 등을 代表作으로 하는 石塊形 基壇形式에 關하여 이 形式이 自然岩塊를 이용하여 基壇을 삼는 形式에서 着眼된 것이고 이 自然岩塊는 突出되어 眼下에 視界가 전개되는 위치에 있고 때로는 河川을 굽어볼 수 있는 위치를 택한 占地上的의 공동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自然岩塊가 없을 때 基壇을 立方體의 岩塊形으로 추조한 것이라는 점을 論한바 있고 나아가 이러한 地點을 택하여 建塔한 이유가 山川裨補에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假說을 開陳한 바 있다. ① 筆書는 여기서 同一한 類型을 갖인 石塔의 例를 몇 基 더 첨가함으로써 이러한 石塔이 가지는 형태상 또는 占地上的의 특징을 더욱 浮刻시켜 보고자 한다.

二、

(一)、寧國寺望塔峯 三層石塔(忠北 永同郡 陽山面 樓橋里)(圖一)



圖一 寧國寺望塔峯三層石塔

寧國寺 南方에 群峯에 쌓여서 岩山이 있고 이 岩山 頂上에 三層石塔이 建立되었다(圖二) 이 岩山 위에는 $4m \times 1.3m$ 높이가 $1.65m$ 의 巨大한 岩塊가 놓여 있는데 이 岩塊의 上面은 $1.3m \times 1.2m$ 높이 약 $42cm$ 의 받침만 남기고 거의 水平으로 깎아내어 높은 塔身 받침을 형성하였다. 이 받침은 약간의 손상을 입었으나 各面에는 通式의 眼象을 二區式 조각하고 下端에는 다시 下段高 $11cm$ 、上段高 $5cm$ 의 二段의 받침이 刻出되었다(圖三). 이러한 形式으로 보아 岩塊 자체를 基壇으로 삼고 이 岩塊가 基壇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眼象을 조각한 받침을 岩塊 上面을 깎아내어 만든 특이한 형태가 되었다.

이 위의 塔身部는 屋身과 屋蓋가 각각 一石으로 된 一般形 三層塔이

다. 특히 初層 屋身 밑에는 屋身石과 一石으로 폭 六七·五cm, 높이 八五cm의 앞은 塔身과 임을 刻出하였고 각 層에는 隅柱形이 있고 初層 屋身 四面에는 넓은 板形의 앞은 突出部가 있어 門扉를 의미하는 듯하다.

二層과 三層의 屋身은 폭에 비하여 높이는 체감률이 적은 편이다(各層 屋身 幅 六五cm, 四六cm, 三〇cm, 高 七六cm, 三三cm, 二九cm)。 또한 주목되는 점은 各層 屋身石이 上促下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니 이러한 형식은 同寺 大雄殿 앞의 石塔에서도 볼 수 있다. 屋蓋石은 넓고 안정된 형태이고 屋蓋 받침은 初層부터 五段, 四段, 四段이다. 相輪部는 全失되었으나 三層 屋蓋石 위에 徑 四·五cm, 깊이 二·五cm의 擦柱孔이 있다.

이 石塔은 岩石 위에 높이 솟아서 寧國寺로 향하는 길에서 바로 올려다 보이는 위치에 건립되었다. 반대로 말하면 이 塔의 建立位置는 높은 山上이어서 前面이 開放되었고 멀리까지 溪谷이 내려다 보인다. 이러한 建塔地點은 慶州南山 茸長溪 三層石塔과 거의 同一하다고 하겠다. 全高



圖2 寧國寺望塔峯 三層石塔遠景

三 m



圖3 寧國寺望塔峯 三層石塔塔身 받침

(二)、安東幕谷洞 三層石塔(安東郡 豊山面 幕谷洞)(圖四)

安東市內에서 西方 약 一二km 洛東江上流 沿岸에 岩山이 노출되어, 奇觀을 이루었고 이 自然景觀을 이용하여 靑城書院, 石門精舍 등이 岩頭에 建立되었다. 이 石塔 또한 여기서 머지 않은 곳에 建立되었다.

山上에서 江岸을 향하여 급경사를 이루는 岩壁이 끊어져서 작은 耕作地가 되었고 이 耕作地 가운데 높이 약 一·二m의 一大岩塊가 솟아 있어 塔은 이 岩塊 위에 建立되었다(圖五)。 岩塊의 上面은 한쪽으로 경사져 있어 경사진 곳을 雜石으로 괴인 위에 두꺼운 二枚板石을 깔아서 水平을 만든 다음 下層基壇 甲石과 같은 形式의 크기가 같지 않은 二枚板石을 엮어서 上層基壇 面石을 받고 있다. 이 甲石 上面에는 二段의 角形 괴임이 있고 추너를 향하여 극히 완만한 경사와 함께 끝에서는 약간 反轉되었다. 따라서 下層基壇은 東쪽으로 경사진 岩塊 上面을 보완

하여 水平되게 만들고 甲石을 얹은 소략한 형식이다. 上層基壇 面石은 四枚로 구성하였으나 불규칙하고 많은 손상을 입고 있으며 各面에 隅柱와 撐柱一柱가 조각되었다. 甲石은 一枚石으로 밑에 一段의 부연과 上面에 二段의 塔身 괴임이 있고 추녀 끝에 反轉이 있어 下層基壇 甲石과 同一한 形式이다. (圖六)

塔身部는 屋身 屋蓋石이 각각 一石이고 三層屋蓋이상이 결실되었다. 屋身石 各面에는 隅柱가 模刻되었고 二層 이상은 금격하게 裝飾되었다. 屋蓋石 받침은 初層 二層 모두 四段이며 初層에는 二段, 二層에는 一段의 屋身 받침이 있다. 落水面은 完만한 경사를 이루고 추녀끝은 경쾌하게 反轉되었다.

이 石塔은 下層基壇 甲石 밑받침돌부터의 높이 一·七m의 小形塔이지만 形式은 전형적인 新羅石塔이며 各部의 비례도 아름다운 美塔이다. 이 石塔은 地上에서 突出한 岩塊를 下層基壇으로 삼았음이 분명하며 특히 地形 전체는 경사가 계속되다 江岸에 이르러 斷崖를 이루어 岩塊만



圖4 安東幕谷洞 三層石塔遠景

을 볼 때 寧國寺塔과 동일하나 이 지점에서는 洛東江을 굽어볼 수 있는 점은 慶北 英陽三池洞石塔이나 驪州 神勒寺塔塔의 建塔位置와 동일하다.

(三) 安東 燕尾寺址 三層石塔(安東市 泥川洞)(圖七)

燕尾寺址는 安東에서 榮州로 통하는 街路上에 西向한 大磨崖佛이 있고 이 岩石 위에 근래에 건립된 小庵이 있는데 이 부근을 「제비원」이라고 불러와서 燕尾寺址로 推定하고 있다. 石塔은 磨崖佛을 조각한 岩石 위 斷崖에 입하여 건립되었다.

下層基壇을 생략하고 岩盤 위에 雜石을 피고 上面에 얹은 받침 윤곽 선을 판 二枚 板石으로 上層基壇을 받고 있다. 上層基壇 中石에는 넓은 隅柱形을 얇게 模刻한 一枚 石塊이나 큰 龜裂이 있다. 甲石은 매우 좁고 두꺼운 一枚石으로 덮었고 上面에 약간의 경사가 있음을 塔身 받침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圖5 安東幕谷洞 三層石塔全景



圖6 安東幕谷洞三層石塔 基壇



圖7 安東泥川洞三層石塔

塔身部는 屋身石과 屋蓋石이 각각 一枚이고 初層屋身石은 매우 높으며 二層과 三層 屋身石은 初層의 거의 三分의 一의 높이로 급격히 낮아졌다. 三層 모두 隅柱가 조각되었으나 매우 얇아서 희미하다. 屋蓋石은 높은 받침으로 해서 두꺼워졌고, 추녀 끝은 水平이고 落水面은 경쾌하게 反轉되었다. 받침수는 初層과 二層이 四段씩이며 三層은 三段이고 上面에는 얇은 一段의 屋身 받침을 마련하였다.

相輪部는 全失되었고 三層屋蓋石 上面에 方形 擦柱孔이 있을뿐이다. 全高 三·五m

本塔은 基壇中石과 初層層屋身이 높고 各層 屋蓋石 또한 두꺼워서 매우 高峻한 感覺을 주나 小型이면서도 비례가 좋은 小塔의 하나이다. 이 塔은 磨崖佛이 조각된 大岩石 위에 건립되어 占地上 公同점을 보여 주며

下層基壇을 생략한 점은 前記 諸塔과 동일한 형식이라고 하겠다.

(四)、大乘寺潤筆庵 後崗 石塔(聞慶郡 山北面 田頭里)(圖八·九)

潤筆庵 西北方 後崗에 岩盤이 노출되었고 그 위에 現高二·三六m의 石塔一基가 建립되었다.

岩盤 위에 폭 六七cm 높이 二三cm의 塔身 받침을 얹고 이 위에 바로 塔身部를 올렸다. 이 받침들의 폭은 初層塔身 폭보다 약간 넓고 이에 비하면 높이가 높아져 거의 初層塔身과 비등한 크기여서 곧 立方體의 岩塊를 연상케 한다. 塔身部는 各層一石式이고 지금 屋身 四石、屋蓋 三石이 남아 있어 원래 五層塔이 아니었던가 추측된다. 屋身에는 隅柱가 있을 뿐이고 各層의 椀蓋물이 고루지 않다. 屋蓋石은 특이한 형식으로 층단식 받침 대신 蓮瓣이 조각되어 仰蓮形을 이루었으니 初層屋蓋石에 의하면 各面에 複葉 重瓣 蓮花 四葉式과 各隅角에 一葉式이 조각되었다. 落水面은 매우 완만하며 층상에 塔身을 받기 위한 알은 받침一段이 있다. 지금 四層屋身 위의 板石은 본래의 것이 아니며 그 위에 폭 二八cm、높이 一八cm의 露盤이 있고 露盤 층상에 徑七cm의 擦柱孔이 있다.



圖8 大乘寺潤筆庵後崗五層石塔

이塔 또한 斷崖 위에 建립되어 밑으로 潤筆庵은 물론 大乘寺 四佛岩과 상대하면서 視野가 展開되는 지점을 택하고 있음이 공동된다.

三、

이 외에도 洪川郡 南面 陽德院 三層石塔③ 등 數三의 예가 있고 앞으로 조사되는 진전을 따라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되지만 이상의 예는 前稿에서 言及한 立地 또는 形式에서 가장 농후한 공동점을 지니고 있다. 이 공동점을 다시 지적해 보면

- (一)、突出된 岩峯의 岩頭 또는 岩盤 혹은 그 위의 岩石을 基壇으로 삼고 있는 점.
 - (二)、前方이 개방되어 視野가 전개되거나 그 밑에 河川이 흐르고 있는 점.
 - (三)、인근에 法堂을 建립할만한 여유가 없이 塔은 法堂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이다.
- 寧國寺 望塔峯塔은 岩山 위에 놓인 巨石을 基壇으로 삼고 있음으로 이 岩山 위에 法堂을 建립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흔적도 없다.



圖9 大乘寺潤筆庵後崗五層石塔

安東幕谷洞 石塔은 바로 후면에 岩脈이 임박해 있고 부근은 耕作地가 되었으나 岩脈과 石塔과의 사이는 法堂을 건립할만한 여유가 없을 정도로 좁다. 또 前方의 斷崖 밑에는 洛東江 上流가 흐르고 있는 점은 前稿의 諸例와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安東泥川洞 石塔은 절벽을 이룬 磨崖佛의 岩山 위에 건립되어 榮州街道를 굽어보는 위치이고 옆에 근래에 세운 寺刹建築物이 있으나 塔과의 연관을 생각할 수 없고 塔의 위치는 건물과의 배치를 의식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大乘寺潤筆庵 後崗石塔도 건물을 세울 여지는 전혀 없으며 塔 자체가 위태로운 정도로 斷崖에 임박해 있다.

以上 諸例의 建立年代는 모두 高麗時代로 보이며 다만 安東幕谷洞 石塔만이 약간 先行하여 新羅末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말하자면 모두 一〇世紀 이후의 건립인 동시에 小規模이다.

筆者는 九世紀 이후에 유행한 이러한 형식의 基壇構成이 慶州 南山里와 西岳里 石塔의 立方體 基壇形式으로 정돈되면서 변형되었고 視野가 전개되고 河川을 眼下에 굽어볼 수 있는 岩頭 혹은 突出된 地形을 택하여 건립한 의도가 高麗時代에 들어 팽배했던 山川裨補의 思想에 起因함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高麗 太祖의 訓要十條 중에도

諸寺院皆道說推占山水順逆而開創道說云吾所占定外妄加創造則損薄地德
 祚業不永

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

朕所至願在於燃燈八關……八關所以事天靈及五獄名山大川龍神也④

등 山川崇信에 관한 내용이 三條나 보임도 또한 당시의 時代相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註

- ① 拙稿..異型石塔의 一基壇形式의 考察(考古美術 一三八·一三九號, 一九七八·九)
- ② 鄭永鎬..永同寧國寺의 遺蹟(李弘植博士回甲記念 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一九六九)
- ③ 鄭永鎬..洪川津里 石佛과 陽德院 三層石塔(考古美術 八一四, 一九六七, 四)
- ④ 高麗史 世家 太祖 二十六年條

(梨花女子大學校 教授)